

**럭키, 광주물류센터 준공  
850평 보관능력 1천톤**

주식회사 럭키는 지난 3월 16일 崔根善 사장 등 관련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화정동에 연건평 2,370평 규모의 물류센터 및 산업건재 전시장, 드봉뷰티센터의 종합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광주지역을 비롯한 전남북 지역의 대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91년 5월부터 총 65억원을 투입하여 22개월 만에 준공한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물류센터 및 산업건재 전시장, 드봉뷰티센터 등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주)럭키의 전사적인 물류거점 확보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된 광주물류센터는 보관면적 850평에 약 1,000



(주)럭키의  
광주물류센터준공식

여톤의 보관능력을 갖춰 월 40여억원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번 준공을 계기로 전남북 지역의 신속한 배송체제 구축 및 납기시간의 단축으로 물류서비스 제공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주)럭키는 이번 광주물류센터 준공에 따라 청주 중앙물류센터를 축으로 서울, 오산, 인천, 대구, 강릉 등 전국에 15개의 지역 물류센터를 구축, 지역별 배송기능을 한층 강화시켰다.

**금성계전, 캔압착기 개발**

금성계전(대표 성기설)은 최근 빈 캔을 자동으로 분리수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캔압착기를 개발했다.

이 회사가 내놓은 캔압착기 '깡통박사'는 내부에 전자석을 내장, 알루미늄캔과 스틸캔을 자동으로 분리 압착하고 우유팩이나 병 등은 센서로 감지해 외부로 배출되도록 되어 있어 현재 미국, 일본 등에서 이용되고 있는 비분리형 압착기에 비해 재활용이 훨씬 쉬운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음성재생 장치를 부착, 빈 캔을 투입구에 넣으면 인사말도 나오게 되어 있어 일반인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설계됐다.

**동양맥주, 맥주에 바코드 부착**

동양맥주에 바코드가 삽입된다.

(주)동양맥주(대표 高宗鎭)는 최근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OB슈퍼드라이·버드와이저·OB맥주 등 세 종류의 맥주 라벨에 바코드를 부착했다. 이번 바코드 부착은 편의점·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에서 POS시스템 채용이 늘어남에 따라 물류관리 체계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삼성화학진흥 단독 투자  
북경에 합성수지공장 건설**

플라스틱 필름업체인 삼성화학진흥(대표 권영보)이 중국 북경에 합

성수지 공장을 건설, 지난 3월 15일 가동을 시작했다. 삼성화학진흥의 폴리백 공장은 북경시 조양구에 위치해 있는데 국내 업체로는 북경에 단독투자자로 공장을 세운 첫 사례이다.

삼성화학진흥의 북경공장은 대지 3천평에 건평 1천5백평 규모로 총 1백15만 달러를 투입, 지난해 4월 공장건설을 시작했다.

삼성화학진흥의 북경공장에서 폴리프로필렌 석유직조백을 비롯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등 범용수지를 이용한 각종 포장재를 생산하게 된다.

## 제일제당 선진제품 전시회 히트 포장상품 토론토

제일제당(대표 김정순)은 지난 3월 24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전세계 유명 식품회사의 제품과 포장재를 동시에 전시하여 자사제품과 선진제품과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한편 새로운 개념의 건강지향적 신제품을 개발, 발표하는 '선진제품 비교전시 및 신제품 품평회'를 가졌다.

임직원 백여명과 간부진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제일제당이 생산하는 밀가루, 설탕, 육가공, 조미료 등 기존제품과 신제품 4종류

가 전시됐으며, 외국제품으로는 아지모도(일본), 유니레버(영국), 웨이크오츠(미국), 라이온(일본)사 등의 제품을 전시했다.

특히 이날 제일제당은 지난해 일본에서 히트한 상품들을 중심으로 포장 및 히트 배경에 대한 진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러한 토론회과정에서 선진제품들은 제품포장에서 보호성, 편의성, 환경성, 경제성을 강조하고 생동감 넘치는 제품패키지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음이 평가되었다.

제일제당은 이번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제품이 일본 제품에 비해 조리 냉동기술, 레토르트기술, 무균포장기

술 등 고도의 식품기술이 뒤져 있음을 인정했다.

한편 회사는 이번 비교전시회를 전 사원이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4월 중에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제일제당이 연 <선진제품 비교전시 및 신제품 품평회>

## 국내 첫 광분해성 플라스틱 대림산업 연구소서 개발

대림산업 주식회사(대표 張弘圭)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사회적 관심으로 부각되면서 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에 착수, 이 회사 대덕연구소에서 국내 처음으로 광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에 성공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각종 포장용 비닐제품을 썩게 만든 것은 지금까지 유공 등이 개발한 땅 속에서 썩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뿐이었지만 햇빛에서 썩는 광분해성 종류는 이번 대림제품(대림포리 DEG-101)이 처음이다.

대림산업 대덕연구소의 고분자연구실을 중심으로 2년여에 걸쳐 약 5

억원을 투자하여 자체 개발한 이 광분해성 마스터 배치(MASTER BATCH) 제품은 PE, PP 등 범용합성수지에 일정 비율로 첨가하여 사용하는 고농도 배합물의 일종이다. 이 제품을 첨가하여 가공한 각종 플라스틱 제품이 빛에 노출될 경우 감광작용에 의해 완전 분해되며, 특히 독특한 구조를 가진 변성 올레핀 2종류와 광감제로 이루어져 분해 속도가 빠르다. 가공성 및 물성도 뛰어나고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식품포장재로 사용시 무해 판정을 받은 이 제품은 현재 국내 특허 출원과 함께 세계 6개국에 국제특허를 출원중에 있으며, 연초부터 가공업체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생산 출하되고 있다.

## SKC, 순간접착제 개발

(주)SKC(대표 최준식)는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오던 순간접착제를 개발, 수원공장에서 연 50여톤 규모로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고 지난 4월 1일 발표했다.

순간접착제란 주성분인 시아노아크릴레이트가 접착하려는 물체 표면에 있는 미량의 수분과 반응, 순간적으로 접착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그동안 월 20톤 규모를 수입해 사용해 왔다.

SKC가 10억원을 들여 완공한 공장의 가동으로 순간접착제 부문에서 연 1백억원 상당의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삼양사 포장표준화 작업 포장개발원과 공동 연구

(주)삼양사는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과 공동으로 물류합리화를 위한 포장시스템 개발 연구사업을 지난 2월에 착수, 오늘 6월 30일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 연구사업은 (주)삼양사의 섬유, 식품, 사료 등 전 제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포장표준화에 의한 유

통과정의 파손 방지와 공간이용 효율의 극대화, 생산에서 소비까지 일괄수송체계를 고려한 포장시스템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더 나아가 물류비 절감을 통한 제품 원가 절감으로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포장라인 자동화를 통한 관리와 공정의 단순화로 인력난을 해소하며 생산성 향상을 꾀하기 위한 작업이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포

장 표준화를 위해 포장치수·기법·강도·재료 표준화 등 포장방법의 적절한 개선과 자동화 가능한 포장방법 연구 및 포장 부자재 감량화 방안을 연구한다.

또한 포장시스템 합리화를 위해 펠리트 치수 통일 방안과 수송·보관의 적재 효율 극대화 방안을 연구한다.

기타 지대의 미끄러짐 방지 및 지대의 접수, 포장중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 포장기술인협의회 정기총회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회장 김선창)는 지난 3월 26일 남서울호텔에서 제9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회원 및 관계자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번 정기총회는 식순에 의해 신입회원 소개 및 93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앞으로도 포장관련 기술자들간에 친목을 더욱 도모하는 한편 한국포장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종 세미나 개최 및 해외연수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 제9차 정기총회

## 물류관리사 1백여명 배출

국내 유일의 물류관리사 양성기관으로서 이미 제5기까지 물류관리사를 배출한 한국물류관리협의회(대표 안태호)는 국내 물류관련 실무자 및 교수들로 구성된 강사진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현장대응형의

물류관리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다.

이번 4월 30일 수료하게 될 제6기 물류관리사는 교과과정 수료 후 국내 선진물류 기업시찰 및 각 분야별 분임토의를 통해 지금까지 배운 교육과 현장과의 문제점을 토론, 자사 물류개선효과를 진단함으로써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물류관리협의회는 금년도부터 연 3회 관리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데 제6기 물류관리사과정 종료 후 5월중 제7기 물류관리사 과정을 개강할 계획이다. 본 과정 종료후 교육생들은 소정의 물류관리 자격시험을 거쳐 합격자에게는 물류관리사 자격증이 주어진다.

## 신효정밀, EPS재생기 개발 시간당 50kg 처리용량

자동진공성형기 제작업체인 신효정밀(대표 金尙賢)이 최근 페스티로폴(EPS)을 재생할 수 있는 설비를 개발, 본격적인 생산 및 시판에 나섰다.

기존 발포 PSP 재생기 제작 기술을 토대로 국내 최초로 개발된 이 EPS 재생 압출기는 분쇄기와 재생기 호퍼가 밀폐되어 있어 작업도중 분진이 발생하지 않으며, 소음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기계구성은 1, 2차로 되어 있는데 제품에 포함된 가스나 휘발분은 1차 실린더 및 1차 다이부에서 배출된다.

처리용량은 EPS의 발포 정도(통상 20~70배 발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40배 발포를 기준 시간당 40~50kg으로서 저발포된 제품을 사용할수록 처리용량은 증가된다.

또한 이 재생설비를 1차 실린더만 사용할 경우에는 용융기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이는 EPS가 회수도중 심하게 오손되어 재활용의 가치가 없을 시 단지 부피가 많은 EPS를 용융시켜 부피를 줄여 특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때 처리능력은 15HP의 구동력으로 시간당 70~80kg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정상적으로 생산된 재생품은 EPS 재생품의 고유 색상인 회색을 띠는데 이를 사출 및 압출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 부가가치 제고가 기대된다.

## 협성, 자동펠리트제작기 개발 국산화로 수입대체효과 기대

협성정밀(대표 權亨植)이 최근 자동펠리트 제작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산업용 기계 전문메이커인 협성정밀이 2년여에 걸쳐 1억8천만원의 연구비를 투자해 국산화에 성공한 이번 자동펠리트의 본격 생산을 계기로 연 20억원 이상의 수입 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모델명 슈퍼24로 명명된 이 자동펠리트 제작기는 원목의 정렬에서부터 타정(打釘)작업, 배출된 펠리트의

적재 작업까지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자동화되어 있다. 또한 첨단기기인 메인콘트롤박스를 채택해 펠리트의 형태와 타정방식, 수량을 자동제어한다.

또 기계의 몸체 부분인 타정기는 기존의 타정총 등으로 수작업에 의존하던 것을 1회에 최대 24개의 못으로 상하판재 동시작업이 가능해 펠리트 생산업계의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계는 최근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으로 등록되어 중소기업의 경우 구입자금의 90%까지 시중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 지합업체 외국인 연수업종지정 건의 지합조합, 만성적 인력난 해결 위해

한국지합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대길)은 최근 노동부 등 정부 관련부서에 지합업종의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 대상 업종으로의 지정을 건의했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합업체가 약 1,200개사에 달하는데 이중 상시 종업원수가 5~10인 정도인 업체가 전체의 약 85%를 차지, 영세성과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합제조업은 낮은 단가임에도 부피가 큰 상자를 제조하기 때문에 노동집약형 산업에 속하고, 타업종에 비해 비교적 근로조건이 열악해 이직률이 심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기능직 인력 확보

의 어려움으로 92년 기준 업체별 근로 종업원 부족률이 평균 29%에 달했고, 이로 인해 생산성 감소는 2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만성적인 인력난, 골판지상자 및 판지상자의 제조작업이 노동집약형 산업임을 감안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합업종을 3D업종으로 추가시켜 외국인 연수 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지합조합은 농림수산부, 국제청 등에 농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장재인 농산물 포장상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삼성화성, 수축필름 수출나서  
미국에 97년까지 1천만불**

식품 포장용 수축필름 및 의료용 수액백 전문업체인 삼성화성공업(대표 陳元浩)이 PP 및 LLDPE(선상저밀도폴리에틸렌) 수축필름의 대미 수출에 나섰다.

이 회사는 지난 3월 23일에 미국 노르웰사와 97년까지 5년간 1천만

달러의 특수 포장용 수축필름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1백만 달러어치의 신용장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하기로 한 제품은 일본 및 유럽의 2개 업체만 생산판매하고 있는 특수 필름으로 삼성화성은 지난 91년말 개발을 완료, 폴리피트 M(삼중복합 수축필름), 폴리피트 L(선상저밀도폴리에틸렌 수축필름)이란 자체 상표로 수출해오고 있다.

삼성화성은 또 기존의 의료 수액백 제조용 PVC 시트에 0.04mm의 무가소제 PVC 필름을 공압출시켜 저분자 가소제 용출을 방지할 수 있는 PVC 복층시트를 자체 개발, 이들 제품에 대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PVC 복층시트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수액백이 기존 유리병에서 PVC 재질로 교체 사용되고 있어 수출전망이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처리 부담금제 내년 실시  
환경처, 관련법률 등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처리비용을 제조업체가 부담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 실시된다.

환경처는 지난 3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유리병, 부동액, 담배 등 11종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정 요율의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먼도기 칫솔 등 5개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오는 96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있다.

또 기존의 폐기물처리 예치금 부과 대상 품목중 재활용이 어려운 화장품 용기 살충제용기 합성수지 등 8개 품목이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전환되고, 페트병 냉장고 에어컨 등이 예치금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부담금 산출기준〉 (단위 : 개, ㉔당)

종별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	
• 500ml 이하	5원
• 500ml 초과	11원
▲ 부탄가스 용기	6원
▲ 유리병	
• 100ml 이하	2원
• 100ml 초과	3원
▲ 금속용기	
• 분사형	6원
• 기타	4원
▲ 복합재료 용기류	30원
▲ 합성수지 용기류	50원
▲ 리튬전지	15원
니켈 카드뮴 전지	
망간 전지	
▲ 부동액	40원
▲ 형광등	27원
▲ 깍	40원
▲ 필터담배	1원
▲ 일회용기저귀	7원
▲ 일회용면도기	20원
▲ 일회용칫솔	20원
▲ 나무젓가락	20원
▲ 종이컵	20원
▲ 일회용 금속박접시	30원
▲ 합성수지	판매가 0.7%

이밖에 제지업·유리용기제조업·제

〈예치금 산출기준〉 (단위 : 개, 대, ㉔당)

종별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 종이팩	
• 250ml 이하	40원
• 250ml 초과	80원
▲ 금속캔	
• 뚜껑부착형	4원
• 뚜껑분리형	8원
▲ 유리병	
• 350ml 이하	4원
• 350ml 초과	6원
▲ 페트병	
• 1500ml 이하	10원
• 1500ml 초과	15원
▲ 수은전지	100원
▲ 산화은전지	50원
▲ 자동차용 연속전지	1,500원
▲ 대형타이어	1,000원
▲ 중·소형타이어	300원
▲ 이륜차용타이어	100원
▲ 윤활유	40원
▲ 텔레비전	1,200원
▲ 세탁기	2,800원
▲ 냉장고	3,600원
▲ 에어컨	2,400원

철 및 제강업 등을 자원재활용 업종으로 지정해 폐자원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다.